

2017년 9급 국가직 총평 및 출제 경향

I. 총평

2017년 국가직 시험은 예전과 달리 비문학 영역(2문항)의 문항 수가 줄고, 문학 영역(7문항)의 문항 수가 늘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 밖에는 예전의 출제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또한 문항 수가 늘어난 문학 영역도 비교적 쉽게 출제되어 무난히 풀었으리라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문법·어문 규정·어휘 영역에서 10문항, 비문학 독해 영역에서 2문항, 문학·기타 영역에서 8문항이 출제되었으며, 중(中)·하(下)의 난이도를 지니는 문제가 대부분이어서 작년에 비해 국어 평균 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문법·어문 규정·어휘 영역에서는?

이론 문법은 ‘우리말 접두사’, ‘음운의 체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나 기본에 충실한 수험생이면 어렵지 않게 풀었으리라 생각한다. 어문 규정(맞춤법, 띄어쓰기 등)은 ‘용언의 활용’, ‘띄어쓰기’와 관계된 문제가 출제되었으나, 이 또한 기본서나 문제 풀이 등을 통해 흔히 접했던 문제이므로 쉽게 해결 했을 것이다. 어휘 영역은 ‘문맥적 의미’, ‘고유어의 사전적 의미’, ‘한자 독음과 성어’가 출제되어 예전과 동일한 출제 경향을 보였다. 다만 ‘한자 독음’ 문제에 선택지마다 3~4개의 한자가 연결되어 있어 수험생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다소 높았으리라 짐작된다. 이번 국가직 시험에서는 어휘 영역이 고득점을 좌우할 변수가 되리라 본다.

둘째, 비문학 독해 영역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과 비교해 출제 문항 수가 크게 줄었다. ‘필자의 견해 찾기’, ‘순서 배열’ 문제가 출제되었으나 어려운 문제가 아니어서 쉽게 해결했으리라 짐작된다.

셋째, 문학·기타 영역에서는?

최근 몇 년간에 비해 문항 수가 크게 늘었다.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등 다양한 장르에서 출제되었다는 것도 특징이다. 고전 부분에 어려운 한자어가 섞여 있어, 내용 파악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기본·심화 과정, 문제 풀이 과정 등을 통해 충분히 접해 봤던 작품들이 출제되어, 문제 해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으리라 본다.

II. 출제 경향

		2017년도 국가직	영역별 총계
문법 · 어법 영역	맞춤법 · 어법	3	10문항
	표준어 · 어휘력	2	
	한자성어 · 독음	3	
	표준 발음법	-	
	외래어 · 로마자	-	
	기타 이론 문법	2	
문학 영역	현대시	2	7문항
	현대소설	3	
	기타 · 고전	2	
비문학 독해 영역	비문학 독해	2	1문항
	기타 이론	-	
기타	국어 지식	1	
	기타	-	

KG패스원 이장우 교수의 스마트 국어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2017년 9급 국가직 문제 풀이 및 진단

문1. 다음 시가의 전개 방식으로 옳은 것은?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燐灼而喫也

- 「구지가」 -

- ① 요구 - 위협 - 환기 - 조건
- ② 환기 - 요구 - 조건 - 위협
- ③ 위협 - 조건 - 환기 - 요구
- ④ 조건 - 요구 - 위협 - 환기

문2. 화자의 처지나 행위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 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셋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삼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 -

- ① 화자는 일을 마치고, 해 지는 강변에 나와 삼을 씻는다.
- ② 화자는 강물에 슬픔을 퍼다 버리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
- ③ 화자는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 ④ 화자는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해 지는 강가의 풍경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 한다.

기술 문제 진단 및 풀이

정답 및 해설

문1. 정답 - ②

龜何龜何(구하구하)
거북아 거북아 → 환기(부름)
首其現也(수기현야)
머리를 내어 놓아라. → 요구(명령)
若不現也(약불현야)
만약 내놓지 않으면 → 조건(가정)
燐灼而喫也(번작이깍야)
구워서 먹으리. → 위협(협박)

- 연 대 : 신라 유리왕 19년(A.D 42)
- 성 격 : 주술적, 집단적, 의식적
- 명 칭 : 영신군가(迎神君歌), 영신가, 가락국가
- 형 식 : 4언 4구의 한역시
- 주 제 : 새로운 생명(신령스런 임금)의 강림 기원
- 감 상 : 가락국 시조인 김수로왕의 강림 신화 속에 삽입된 노래이다. 신에게 소망을 비는 주술적 노래를 통해 우리 민족의 원초적 삶의 모습과 문학의 생성을 알 수 있다.

문2. 정답 - ④

이 시의 화자는 어느 '중년의 노동자'이다. 그것은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에서 알 수 있다. 그는 어느 날 저녁 '강물'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본다. '삼을 씻는' 행위는 단순한 일의 마무리가 아니라 자신의 슬픔을 잊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슬픔도 퍼다 버린다.'고 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그다지 자신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스스로 깊어 가는 강',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돌아갈 뿐이다'와 같은 구절에서 삶을 적극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방관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자인(自認)하고 있다. 한 마디로 화자는 무력감, 우울함, 실의감에 빠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④의 주관적 감정 배제나 강가의 풍경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는 표현은 옳지 않다.

- 화자(나): 고단하고 궁핍한 도시 노동자(소시민)
- 상황: 화자가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해가 저무는 강에서 삼(노동자의 삶을 상징)을 씻으며, 자신의 삶(노동자로서의 삶의 슬픔을 내다버리고, 썩은 강의 달을 보며 다시 자신이 사는 마을로 돌아가야겠다는 다짐)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다.
- 강과 달의 상징성: 강은 '썩은 물', '스스로 깊어감' 등의 표현을 활용하여 도시 노동자(소시민)들의 삶의 비애를 표현하였고, 달은 절망 속에서 발견한 희망, 즉 고단하지만 다시 삶의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이다.
- 구성
 - 1~4행 : 흐르는 강물을 보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함.
 - 5행~8행 : 삶의 비애에 대한 체념적이고 무기력한 태도
 - 9행~12행 : 무기력한 삶에 대한 인식과 그 속에서 발견한 삶의 희망
 - 13행~16행 : 현실에 대한 체념과 삶의 수용
- 주제: 노동자로 살아온 삶에 대한 비애와 성찰

문3. 밑줄 친 부분과 관련된 사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국 시대 말, 진나라의 공격을 받은 조나라 혜문왕은 동생인 평원군을 초나라에 보내어 구원군을 청하기로 했다. 이십 명의 수행원이 필요한 평원군은 그의 삼천여 식객 중에서 십구 명은 쉽게 뽑았으나, 나머지 한 명을 뽑지 못한 채 고심했다. 이때에 모수라는 식객이 나섰다. 평원군은 어이없어하며 자신의 집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물었다. 모수가 삼 년이 되었다고 대답하자 평원군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법인데, 모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모수는 “나리께서 이제까지 저를 단 한 번도 주머니 속에 넣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머니 속에 넣어 주신다면 끝뿐이 아니라 자루까지 드러날 것입니다.” 하고 재치 있는 답변을 했다. 만족한 평원군은 모수를 수행원으로 뽑았고, 초나라에 도착한 평원군은 모수가 활약한 덕분에 국빈으로 환대받고, 구원군도 얻을 수 있었다.

- | | |
|--------|--------|
| ① 吳越同舟 | ② 囊中之錐 |
| ③ 馬耳東風 | ④ 近墨者黑 |

문4.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얘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뒤에 처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져 버렸다. 발이라도 빠졌는지 백화는 꿈쩍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영달이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백화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면서 말했다.
“무겁죠?”
영달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벼운 느낌이였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리라 생각하니, 영달이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백화가 말했다.
“어깨가 참 넓으네요. 한 세 사람쯤 업겠어.”
“택이 근수가 모자라니 그렇다구.”
- 황석영, 「삼포 가는 길」 중에서 -

- ① ‘눈 덮인 길의 고랑’은 백화가 신음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 ② 등에 업힌 백화는 영달이가 ‘옥자’를 떠올리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 ③ 영달이는 ‘대전에서의 옥자’를, 어린애처럼 생각이 깊지 않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 ④ 백화는 처음에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기를 싫어했으나, 영달이의 등에 업힌 이후 싫어하는 내색이 없어 보인다.

문3. 정답 - ②

- ② 囊中之錐(낭중지추): 주머니 속의 송곳이란 뜻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남의 눈에 저절로 드러난다는 뜻.
- ① 吳越同舟(오월동주): 서로 반목하는 사이라도 공통의 곤란이나 이해에 대해서는 협력할 수 있음을 비유한 말.
- ③ 馬耳東風(마이동풍):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고 곧 흘려버림을 이르는 말.
- ④ 近墨者黑(근묵자흑): 먹을 가까이하면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사귀면 물들기 쉽다는 말.

문4. 정답 - ③

- 영달은 ‘백화’를 통해 ‘옥자’를 떠올리고 있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 아마 쇠약해진 탓이리라 생각하니’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옥자’는 ‘어린애처럼 생각이 깊지 않은 존재로 인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몸이 쇠약했음을 떠올리고 있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던 197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정착된 삶을 살지 못하고 불안하게 떠도는 농민 출신 노동자들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삼포’는 실제의 지명이라기보다는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사람들이 안주할 수 있는 이상(소망)적인 공간’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삼포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그들이 바라던 이상의 공간이 사라지고 만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삼포의 사라짐’이 갖는 의미는 떠도는 사람들은 ‘원초적 고향 상실’과도 상통한다.
 - 구성 : 과거와 현재의 장면이 겹치는 복합 구성
 - 표현 :
① 간결한 문장과 행동 묘사를 통해 극적인 효과.
② 간결한 대화를 통해 내용을 압축적으로 드러냄.
③ 상징적 어휘를 통해 의도하는 바를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 주제 : 노동자들의 고달픈 삶의 애환

문5. 밑줄 친 말의 문맥적 의미가 같은 것은?

고장 난 시계를 고치다.

- ① 부엌을 입식으로 고치다.
- ② 상호를 순 우리말로 고치다.
- ③ 정비소에서 자동차를 고치다.
- ④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낡은 법을 고치다.

문6. 밑줄 친 말의 사전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이들이야 학교 가는 시간을 빼고는 내내 밖에서만 노는데, 놀아도 여간 시망스럽게 놀지 않았다. - 최일남, 「노새 두 마리」 중에서 -

- ① 몹시 짓궂은 데가 있다.
- ② 생기 있고 힘차며 시원스럽다.
- ③ 어수선하여 질서나 통일성이 없다.
- ④ 보기에 태도나 행동이 가벼운 데가 있다.

문7. 밑줄 친 접두사가 한자에서 온 말이 아닌 것은?

- ① 강염기
- ② 강타자
- ③ 강기침
- ④ 강행군

문8. 밑줄 친 말의 기본형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를 강판에 가니 즙이 나온다. (기본형: 갈다)
- ② 오래되어 불은 국수는 맛이 없다. (기본형: 불다)
- ③ 아이들에게 위험한 데서 놀지 말라고 일렀다. (기본형: 이르다)
- ④ 퇴근하는 길에 포장마차에 들렀다가 친구를 만났다. (기본형: 들르다)

문5. 정답 - ③

‘(시계를) 고치다’는 ‘헛거나 고장이 난 물건을 손질하여 쓸 수 있게 하다’는 뜻으로, ③의 ‘(자동차를) 고치다’와 유사하다.

- ① 본디의 것을 손질하여 다른 것이 되게 하다.
- ② 이름 따위를 바꾸거나 변경하다.
- ④ 잘못된 법이나 제도 따위를 바꾸다.

문6. 정답 - ①

- ① 시망스럽다: [형용사] 몹시 짓궂은 데가 있다는 뜻.
- ② 활발하다: [형용사] 생기 있고 힘차며 시원스럽다
- ③ 산만하다: [형용사] 어수선하여 질서나 통일성이 없다.
- ④ 잔망스럽다(孱妄-): [형용사] 보기에 태도나 행동이 가벼운 데가 있다.

문7. 정답 - ③

- ③ 강기침: 마른기침(가래가 나오지 않는 기침)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순우리말.
- ① 강염기(強塩基-군셀 강, 소금 염, 터 기): 수용액에서 수산화 이온과 양이온으로 완전히 해리되는 염기. 강알칼리.
- ② 강타자(強打者-군셀 강, 칠 타, 놈 자): 장타를 잘 치는 선수 또는 타율이 높은 타자.
- ④ 강행군(強行軍-군셀 강, 갈 행, 군사 군): 무리함을 무릅쓰고 먼 거리를 급히 가는 행군이나 짧은 시간 안에 끝내려고 무리하게 일.

문8. 정답 - ②

- ② 불다: [‘ㄷ’ 불규칙]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 불다: 바람, 유행·풍조 따위가 일어나다.
- ① 갈다: [‘ㄹ’ 탈락] 잘게 부수려고 단단한 물건에 대고 문지르거나 단단한 물건 사이에 넣어 으깨다.
- ③ 이르다: [‘르’ 불규칙] 알아듣거나 깨닫게 말하다. 타 이르다.
- ④ 들르다: [‘으’ 탈락] 지나는 길에 잠깐 들어가 머물다. 경유하다.

KG패스원 이장우 교수의 스마트 국어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해(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해)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해(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해)

■ 기술 문제 진단 및 풀이 ■

문9. 다음 글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쯤 돼지고기를 반 근, 혹은 반의 반 근 사러 가는 푸줏간이었다. 어머니는 돈을 들려 보내며 매양 같은 주의를 잊지 않았다. 적게 주거든, 애라고 조금 주느냐고 말해라, 그리고 또 비계는 말고 살로 주세요, 해라. 푸줏간에서는 한쪽 볼에 힘껏 쥐어질린 듯 여문 밤톨만한 혹이 달리고 그 혹부리에, 상기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끄들리고 있는 듯 길게 뻗힌 수염을 기른 홀아비 중국인이 고기를 팔았다. 애라고 조금 주세요? 키가 작아 발돋움질로 간신히 진열대에 턱을 올려놓고 돈을 밀어 넣는 것과 동시에 나는 충알처럼 내뺐었다. 고기를 자르기 위해 벽에 매단 가죽 끈에 칼을 문질러 날을 세우던 중국인은 미처 무슨 말인지 몰라 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비계는 말고 살로 달래라 하던 어머니가 일러준 말을 하기 전 중국인이 고기를 자를까 봐 허겁지겁 내쫓았다. 고기로 달래요. 중국인은 꾸룩꾸룩 웃으며 그때야 비로소 고기를 덩석 베어 내었다. 왜 고기만 주니, 털도 주고 가죽도 주지. - 오정희, 「중국인 거리」 중에서 -

- ① 어머니의 주위에 대한 ‘나’의 수용
- ②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어머니의 태도
- ③ 시간적 배경의 특성과 공간적 배경의 역할
- ④ ‘나’의 말에 대해 푸줏간의 ‘중국인’이 보여 주는 정서

문9. 정답 - ③

③ 이 작품의 중심 배경은 ‘중국인 거리’로 전쟁 직후의 하층민들이 살아가는 일종의 빈민가이며, 주인공(나)의 정신적·육체적 성장 과정이 드러나는 중요한 공간이다. 그러나 제시된 지문에서는 이러한 역할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전체적으로 6·25전쟁에 따른 피난살이와 시간의 역전적 구성이 나타나는 하나 이 또한 제시된 지문에는 없다.

- ① ‘나’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따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 ② ‘적게 주거든, 애라고 조금 주느냐고 말해라, 그리고 또 비계는 말고 살로 주세요, 해라.’라고 시키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남에게 무시당하거나 손해 보기 싫어하는 어머니의 태도를 알 수 있다.
- ④ 고기를 자르기도 전에 ‘애라고 조금 주세요?’ 하고 ‘나’의 말을 듣고, ‘중국인은 꾸룩꾸룩 웃으며 ~ 왜 고기만 주니, 털도 주고 가죽도 주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의 당돌 한 모습에 대한 황당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6·25 피난살이 중에 인천으로 이주해 와 중국인 거리 속에 살게 된 한 소녀의 눈을 통해 전쟁의 비극상을 그려내고 있다. 흑인 병사와의 국제결혼을 꿈꾸던 양공주의 죽음과, "난 커서 양갈보가 될 테야."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어린 소녀들의 슬픈 감수성을 통해 전쟁이 낳은 비극과 그것이 어린 영혼에 준 상처를 날카로움을 동반한 담담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 갈래 : 단편 소설, 성장 소설, 전후 소설
- 구성 : 시간의 역전적 구성
-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 제재 : 한 소녀의 정신적·육체적 성장 과정
- 주제 : 정신적 성장의 고통

문10.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말로 나타낸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짐작한다. 그러므로 생각과 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말과 생각이 얼마만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두 가지 있다. 그 하나는 말과 생각이 서로 꼭 달라붙은 쌍둥이인데 한 놈은 생각이 되어 속에 감추어져 있고 다른 한 놈은 말이 되어 사람 귀에 들리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른 하나는 생각이 큰 그릇이고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이어서 생각에는 말 이외에도 다른 것이 더 있다는 생각이다. 이 두 가지 생각 가운데서 앞의 것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틀렸다는 것을 즉시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은 거의 대부분 말로 나타낼 수 있지만, 누구든지 가슴속에 응어리진 어떤 생각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애매운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말과 생각이 서로 안팎을 이루는 쌍둥이가 아님은 쉽게 판명된다.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매우 넓고 큰 것이며 말이란 결국 생각의 일부분을 주워 담는 작은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생각이 말보다 범위가 넓고 큰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가능한 한 말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그 생각

문10. 정답 - ④

④ 마지막 단락, ‘~그러니 말을 통하지 않고는 생각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고 한 점에서 ‘말과 생각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글쓴이의 논지와는 상반되는 견해이다.

- ① 둘째 단락과 넷째 단락, ‘생각은 큰 그릇, 말은 작은 그릇’이라고 한 점에서 알 수 있다.
- ② 첫째 단락,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말로 나타낸다.’고 한 점에서 알 수 있다.
- ③ 첫째 단락, ‘생각과 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 점에서 알 수 있다.

KG패스원 이장우 교수의 스마트 국어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의 위대함이나 오묘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형님이요, 말이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생각은 동생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러니 말을 통하지 않고는 생각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 ① 말은 생각보다 범위가 좁다.
- ② 말은 생각을 나타내는 매개체이다.
- ③ 말과 생각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 ④ 말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문11.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 ① ‘청(靑)무우밭’은 ‘바다’와 대립되는 이미지로 쓰였다.
- ② ‘흰나비’는 ‘바다’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
- ③ 화자는 ‘공주처럼’ 나약한 나비의 의지 부족과 방관적 태도를 비판한다.
- ④ ‘삼월(三月)달 바다’와 ‘새파란 초생달’은 모두 차가운 이미지로 사용되었다.

기술 문제 진단 및 풀이

문11. 정답 - ③

③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는 것은 나비가 ‘바다’라는 가혹한 현실에 부딪혀 좌절하는 모습이 투영된 것이지, ‘바다’를 향해 날아가고자 한다는 점에서 보면, 나비의 의지 부족이나 방관적 태도를 비판한 것은 아니다.

① ‘청무우밭’은 나비가 바다로 착각하고 날아간 공간이라는 하나 ‘나비’의 입장에서 보면 ‘동경(이상)의 세계요, 생명성의 공간’이며, ‘바다’는 날개를 절개 하는 ‘냉혹한 현실이요, 무생명성의 공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서로 대립되는 이미지로 볼 수 있다.

② 1연에서 수심(가혹한 현실)의 깊이를 아무에게도 들은 적이 없으므로 ‘흰나비’는 ‘바다’가 무섭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④ ‘삼월달 바다’는 꽃이 피지 않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새파란 초생달’은 ‘시리다’고 표현한 점에서 둘은 모두 차가운 이미지임을 알 수 있다.

- 성격 : 감각적, 상징적, 묘사적
- 어조 : 감정을 절제한 관조적인 태도의 어조
- 표현 :

- ① 대상의 움직임에 대한 관찰을 통해 사건을 서술하였다.
- ② 색채 이미지와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하였다.
- ③ 푸른색과 흰색이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 주제 :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감
- 짜임 : 1연 -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
2연 - 새로운 세계에 대한 모험과 시련
3연 - 새로운 세계에 대한 좌절감

• 이해와 감상

이 시는 ‘바다와 나비’에서 보이는 ‘푸른색’과 ‘흰색’의 선명한 색갈 대비를 통해, 이상 혹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이라는 주제를 감각적으로 구체화하여 전달하고 있다. 즉 대상(나비)속에 화자가 이입되어 바다(근대 문명)앞에서 위태롭고 무기력한 나비의 모습을 통해 문명 비판적 상상력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로 끝나는 냉정한 어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시적 화자의 ‘나비’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즉 시적 화자는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관조적인 태도로써 나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다.

문12. <보기>를 참고할 때, ㉠ ~ ㉣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어떤 특정한 시기의 풍속이나 세태의 한 단면을 그리는 소설 양식을 세태 소설이라 한다. 세태 소설은 당대 사회의 모순이나 부조리 등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여 그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 그 대표적인 소설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 있다.

㉠ 개찰구 앞에 두 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낡은 파나마에 모시 두루마기 노랑 구두를 신고, 그리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을, 구보는, 확신을 가져 무직자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 금광 브로커에 틀림없었다. 구보는 새삼스러이 대합실 안팎을 둘러본다. 그러한 인물들은, 이곳에도 저곳에도 눈에 띄었다.

㉢ 황금광 시대(黃金狂時代).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에서는 무거운 한숨이 새어 나왔다. 황금을 찾아,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히, 일면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시내에 산재한 무수한 광무소(鑛務所). 인지대 백원. 열람비 오 원. 수수료 십 원. 지도대 십팔 전...... 출원 등록된 광구, 조선 전토(全土)의 칠 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졸부가 되고, 또 몰락해 갔다. 황금광 시대. 그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이러한 문인들조차 끼어 있었다. 구보는 일찍이 창작을 위해 그의 벗의 광산에 가 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사람들의 사행심,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을 구보는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과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중에서 -

- ① ㉠: 세태의 단면이 드러나는 공간적 배경이다.
- ② ㉡: 적극성을 지닌 존재들로 서술자의 예찬 대상이다.
- ③ ㉢: ‘무거운 한숨’을 유발하는 부조리한 현실로 서술자의 비판 대상이다.
- ④ ㉣: 서술자가 ‘금광열’이 고조되어 있는 것으로 설정한 대상이나 공간이다.

문13. ㉠ ~ ㉣에 대한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빌기를 다 함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황천인들 무심할까. 단상의 오색구름이 사면에 웅위하고 산중에 ㉠ 백발 신령이 일제히 하강하여 정결케 지은 제물 모두 다 흠향한다. 길조(吉兆)가 여차(如此)하니 귀자(貴子)가 없을쏘냐. 빌기를 다한 후에 만심 고대하던 차에 일일은 한 꿈을 얻으니, ㉡ 천상으로서 오운(五雲)이 영롱하고, 일원(一員) 선관(仙官)이 청룡(靑龍)을 타고 내려와 말하되,

“나는 청룡을 다스리던 선관이더니 익성(翼星)이 무도(無道)한 고로 상제께 아뢰되 익성을 치죄하여 다른 방으로 귀양을 보냈더니 익성이 이걸로 함심(含心)하야 ㉢ 백옥루 잔치 시에 익성과 대전(對戰)한 후로 상제전에 득죄하여 인간에 내치심에 갈 바를 모르더니 남악산 신령들이 부인 댁으로 지시하기로 왔사오니 부인은 애휼(愛恤)하옵소서.”

하고 타고 온 청룡을 오운 간(五雲間)에 방송(放送)하며 왈,

“㉣ 일후 풍진(風塵) 중에 너를 다시 찾으리라.”

하고 부인 품에 달려들거늘 놀래 깨달으니 일장춘몽이 황홀하다.

문12. 정답 - ②

②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금광 브로커에 틀림 없었다.’고 한 점에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황금만능주의 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금광 브로커’는 예찬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의 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②는 적당하지 않다.

① ‘개찰구’ 앞에 서 있는 두 사내의 모습을 ‘무직자, 금광 브로커’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찰구’는 세태의 단면이 드러나는 공간적 배경이라 할 수 있다.

③ 이어지는 내용에서 ‘무거운 한숨이 새어 나왔다’, ‘사람들은 졸부가 되고, 또 몰락해 갔다’고 한 것으로 보아, ‘황금광 시대’는 부조리한 현실이자, 서술자가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세태라 할 수 있다. <보기> 참조

④ 구보는 ‘광산’에서 사람들의 사행심,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을 보고 싶었다.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광산이 아닌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과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는 서술자가 ‘금광열’이 고조되어 있는 것으로 설정한 대상이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 갈래 : 중편소설, 심리소설, 세태소설

• 배경 : 시간 - 1930년대 어느 하루 · 공간 - 서울 거리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구성 : 단순 구성, 1일 동안의 여로 형식

• 주제 : 일상성의 회복을 꿈꾸는 지식인의 고독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흠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미혼의 소설가 구보가 어느 날 집을 나서 서울의 거리를 배회하면서 거리의 풍물과 사람들에 대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심리적 반응을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그리고 있다. 그러한 내면 의식은 단면적 사실들에 의해 촉발되는 두서없는 생각의 기록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서술 방식을 통해 1930년대의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문13. 정답 - ④

④ ‘일후 풍진(風塵) 중에 너를 다시 찾으리라’는 부인의 꿈속에 청룡을 타고 온 선관이 청룡을 구름 가운데 풀어주며 한 말이다. 따라서 선관이 인간 세상(풍진)에 내려와서 겪게 될 일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악산 신령’은 ‘남악산 신령들이 부인 댁으로 지시하기로 왔사오니’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계에 내려져 천상으로 복귀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계에 내려진 선관에게 부인 댁으로 가라고 지시한 존재이다.

① ‘지성이면 감천~오색구름이 사면에 웅위’라는 배경을 통해 길조(吉兆)임을 알 수 있다.

② ‘일일은 한 꿈을 얻으니~’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선관이 부인의 꿈속에 나타나 ‘~후로 상제전에 득죄하여 인간에 내치심’이라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다.

KG패스원 이장우 교수의 스마트 국어

■ 기술 문제 진단 및 풀이 ■

정신을 진정하여 정언주부를 청입(淸入)하야 몽사를 설화(說話)한대 정언주부가 즐거운 마음 비할 데 없어 부인을 위로하야 춘정(春情)을 부쳐 두고 생남(生男)하기를 만심 고대하더니 과연 그달부터 태기 있어 십 삭이 찬 연후에 옥동자를 탄생할 제, 방 안에 향취 있고 문 밖에 서기(瑞氣)가 뻗질러 생광(生光)은 만지(滿地)하고 서채(瑞彩)는 충천하였다.

... (중략) ...

이때에 조정에 두 신하가 있으니 하나는 도총대장 정한담이요, 또 하나는 병부상서 최일귀라. 본대 천상 익성으로 자미원 대장성과 백옥루 잔치에 대전한 죄로 상계 득죄하여 인간 세상에 적강(謫降)하여 대명국 황제의 신하가 되었는지라 본시 천상지인(天上之人)으로 지략이 유여하고 술법이 신묘한 중에 금산사 옥관도사를 데려다가 별당에 거처하게 하고 술법을 배웠으니 만부부당지용(萬夫不當之勇)이 있고 백만군중대장지재(百萬軍中大將之才)라 벼슬이 일품이요 포악이 무쌍이라 일상 마음이 천자를 도모코자 하되 다만 정언주부인 유심의 직간을 꺼려하고 또한 퇴재상(退宰相) 강희주의 상소를 꺼려 주저한 지 오래라.

— 「유충렬전」 중에서 —

- ① ㉠: 길조(吉兆)가 일어날 것임을 암시한다.
- ② ㉡: '부인'이 꾸 꾸의 상황이다.
- ③ ㉢: '선관'이 인간 세상에 귀양을 오게 되는 계기이다.
- ④ ㉤: '남악산 신령'이 후일 청룡을 타고 천상 세계로 복귀할 것임을 암시한다.

문14. ㉠ ~ ㉤의 한자가 모두 바르게 표기된 것은?

〈보 기〉

글의 진술 방식에는 ㉠ 설명, ㉡ 묘사, ㉢ 서사, ㉤ 논증 등 네 가지 방식이 있다.

㉠	㉡	㉢	㉤
① 說明	描寫	敘事	論證
② 設明	描寫	敘事	論症
③ 說明	猫鯊	徐事	論症
④ 說明	猫鯊	徐事	論證

문15. 밑줄 친 부분이 어문 규정에 맞는 것은?

- ① 병이 씻은 듯이 낳았다.
- ② 넉넉치 못한 선물이나 받아 주세요.
- ③ 그는 자물쇠로 책상 서랍을 잠갔다.
- ④ 옷가지를 이여서 빗줄처럼 만들었다.

- 갈래: 군담 소설, 영웅 소설, 국문 소설
- 성격: 전기적, 비현실적, 우연적
- 주제: 유충렬의 고난과 영웅적인 일대기
- 이해와 감상

『유충렬전』은 국문본 소설로 군담소설(영웅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의 전형인 작품이다. 충신과 역신의 갈등을 통해, 현실적 논리인 악의 승리가 이상적 논리인 선의 승리로 극복되어 윤리적 당위인 충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당쟁으로 실세했거나 몰락한 계층의 재기, 복수의식을 보여주기도 하며, 병자호란의 실상과 함께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을 담고 있기도 하다. 〈삼국지〉, 〈설인귀전〉의 부분적 영향을 찾아볼 수 있으며 영조 이후 또는 19세기 작품으로 추정된다.

문14. 정답 - ①

- 설명(說明-말씀 설, 밝을 명): 객관적인 정보나 지식,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나 사건 등에 대하여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풀어서 쓰거나 말하는 것.
- 묘사(描寫-그릴 묘, 베낄 사): 어떤 대상을 감각적인 인상에 의존하여 세부적으로 나누어,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내는 방식으로, 인물의 외양, 심리, 배경(풍경) 등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 서사(敘事-차례 서, 일 사): 시간의 흐름 또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진행되는 의미 있는 사건이나 행동의 변화를 서술하는 방법으로, 인물의 행위에 따른 사건 전개가 필수 요소이다.
- 논증(論證-논할 논, 증거 증): 자신의 주장이나 판단에 대한 타당한 이유나 근거를 들어 어느 하나의 결론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의견, 판단의 대립이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

문15. 정답 - ③

- ③ ‘잠갔다’는 ‘아/어’형 어미 앞에서 ‘ㄴ’이 탈락하여 ‘잠가, 잠갔다, 잠가라’로 활용되는 용언이다.
- ① ‘낳다’는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몸의 이상이 없어지다’는 뜻으로, 어간의 끝소리 ‘ㅅ’이 ‘아’형 어미 앞에서 탈락되는 ‘ㅅ’ 불규칙이 일어나는 용언이다. ‘나야, 나았다’ 등으로 활용한다. ‘낳다’는 ‘밴 아이나 새끼, 알을 몸 밖으로 내놓다’, ‘어떤 결과를 이루거나 가져오다’, ‘배출하다’ 등의 뜻으로, ‘낳아, 낳았다’ 등으로 활용한다. 여기서는 ‘병을 고치다’의 의미를 지니므로 ‘나았다’를 ‘나았다’로 고쳐야 한다.
- ② 울림소리 뒤에 오는 ‘하’는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릴 경우에는 거센소리로 적고, 안울림소리일 뒤에 오는 ‘하’가 통째로 탈락할 경우에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따라서 ‘넉넉하지’의 준말은 ‘넉넉지’가 맞다.
- ④ ‘잇다’는 ‘두 끝을 맞대어 붙이다, 끊어지지 않게 계속하다’ 등의 뜻으로, ‘어’형 어미 앞에서 ‘ㅅ’이 탈락되는 ‘ㅅ’ 불규칙 활용을 한다. ‘잇+어서’의 형태이므로 ‘이어서’가 맞다.

KG패스원 이장우 교수의 스마트 국어

■ 기술 문제 진단 및 풀이 ■

문16. 훈민정음의 28 자모(字母) 체계에 들지 않는 것은?

- ① $\overline{o}$
- ② Δ
- ③ Π
- ④ $\frac{\pi}{\infty}$

[참고 자료]

- 자음의 기본자와 가획자 및 이체자 → 17자

이 름	기본자	상 형	가획자	이체자
아음(牙音)	ㄱ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舌根閉喉之形(설근폐후지형)	ㅋ	ㅇ
설음(舌音)	ㄴ	혀끝이 잇몸에 붙는 모양. 舌附上齶之形(설부상악지형)	ㄷ ㅌ	ㄹ(반설음)
순음(脣音)	ㅁ	입의 모양(象口形)	ㅂ ㅍ	
치음(齒音)	ㅇ	이의 모양(象齒形)	ㅈ ㅊ	ㄷ(반치음)
후음(喉音)	ㅇ	목구멍 모양(象喉形)	ㅎ	

- 모음의 기본자와 초출자, 재출자 → 11자

이름(기본자)	상 형	혀(舌)	소리(聲)
ㄷ	천(天) - 하늘을 본뜬.	혀를 오므림.	소리가 깊음.
ㄸ	지(地) - 땅을 본뜬.	혀를 조금 오므림.	소리가 깊지도 얇지도 않음.
ㄹ	인(人) - 사람을 본뜬.	혀를 안 오므림.	소리가 얇음.

이 름	특징	
ㅏ, ㅑ, ㅓ, ㅕ(초출자)	기본자를 합성함	ㅏ“가 하나만 쓰임.
ㅗ, ㅛ, ㅜ, ㅠ(재출자)	기본자를 합성함	ㅗ“가 둘이 쓰임.

문17.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한밤중에 전화가 왔다.
- ② 그는 일도 잘할 뿐더러 성격도 좋다.
- ③ 친구가 도착한 지 두 시간만에 떠났다.
- ④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잘 안 된다.

문16. 정답 - ④

순경음 ‘빙’은 현실음으로는 사용되었으나 28자의 체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참고> 현대 국어에는 ‘㉠→㉡→㉢→.’가 차례대로 소
실되어 24자가 남았다.

문17. 정답 - ①

① ‘-중(中)’의 띄어쓰기: ‘여럿 가운데, 진행하고 있는 동안’ 등의 뜻일 때(회의 중, 공사 중, 우리들 중 등)는 일반적으로 의존 명사로 보고 띄어 쓰며, 한 단어로 굳어진 말(은연중, 무의식중, 부재중 등)은 접미사로 보고 붙여 쓴다. ‘한밤중’은 ‘깊은 밤’의 뜻이므로 붙여 쓴다.

② ‘-뿐’의 띄어쓰기: 관형형 어미 ‘-(으)ㄴ’ 뒤에 쓰여 ‘다만 어떠한가 어찌할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과 ‘-다 뿐이지’의 형식으로 쓰여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은 띄어 쓰고, ‘-다뿐이었니, -다뿐이냐, -ㄴ뿐더러’ 등은 어미로 굳어진 것으로 보고 붙여 쓴다. 따라서 ‘잘할뿐더러’로 붙여 쓰는 것이 맞다.

③ ‘-만’의 띄어쓰기: 주로 ‘만에’, ‘만이다’ 꼴로 쓰여 동안이 얼마간 계속되었음을 나타내는 말, 앞말이 뜻하는 동작이나 행동에 타당한 이유가 있음 또는 그런 동작이나 행동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말은 의존 명사로 보고 띄어 쓰고, 체언 뒤에 쓰여 ‘단독, 유일’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는 붙여 쓴다. ‘두 시간 만에’가 맞다.

④ ‘안-’의 띄어쓰기: 부정문(∼지 않다, ∼지 아니하다)으로 쓰인 경우는 띄어 쓰고, 그 밖에 ‘마음(속)의 근심, 심리 상태, 성격, 품행’ 등과 관련이 있는 형용사는 붙여 쓴다. 여기서는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이므로 한단어로 붙여 쓴다.

문18. 독음이 모두 바른 것은?

- ① 探險(탐험) - 矛盾(모순) - 貨幣(화폐)
- ② 詐欺(사기) - 惹起(야기) - 灼熱(치열)
- ③ 荊棘(형자) - 破綻(파탄) - 洞察(통찰)
- ④ 箴言(잠언) - 惡寒(악한) - 奢侈(사치)

문19.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ㄴ, ㄹ, ㅇ’은 유음이다.
- ② ‘ㅅ, ㅆ, ㅎ’은 마찰음이다.
- ③ ‘ㅡ, ㅣ, ㅏ’는 후설 모음이다.
- ④ ‘ㄱ, ㅋ, ㆁ, ㄷ’는 원순 모음이다.

[참고 자료]

- 자음의 체계

소리 내는 자리			두 입술	윗잇몸 혀 끝	경구개 혓바닥	연구개 혀 뒤	목청사이
소리 내는 방법			입술소리	혀끝소리	구개음	연구개음	목청소리
안울림 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안울림 소리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거센소리					
울림 소리	비음(鼻音)		ㅁ	ㄴ		ㅇ	
	유음(流音)			ㄹ			

- 모음의 체계

혀의 앞뒤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 순	원 순	평 순	원 순
고모음	ㅣ	ㅗ	ㅡ	ㅜ
중모음	ㅑ	ㅓ	ㅕ	ㅛ
저모음	ㅓ		ㅗ	

문18. 정답 - ①

- ① •探險(탐험-찾을 탐, 험할 험):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곳을 찾아가서 살펴보고 조사함.
 •矛盾(모순-창 모, 방패 순): 말이나 행동 또는 사실의 앞뒤가 서로 맞지 않음.
 •貨幣(화폐-재물 화, 화폐 폐): 상품 교환의 매개물. 돈
 ② •詐欺(사기-속일 사, 속일 기):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나쁜 꾀로 남을 속임.
 •惹起(야기-이끌 야, 일어날 기): 일이나 사건 등을 끌어 일으킴.
 •灼熱(작열-사를 작, 더울 열): 불 따위가 이글이글 뜨겁게 타오름.
 ③ •荊棘(형극-모형나무 형, 가시나무 극): 나무의 온갖 가시, 시련과 고난을 비유.
 •破綻(파탄-깨뜨릴 파, 못 터질 탄): 일이나 계획 따위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그릇됨.
 •洞察(통찰- 꿰뚫을 통, 살필 찰): 전체를 환하게 내다봄. 예리하게 꿰뚫어 봄.
 ④ •箴言(잠언-바늘 잠, 말씀 언):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는 짧은 말.
 •惡寒(오한-미워할 오, 찰 한): 몸이 오슬오슬 춥고 떨리는 증세. <주의> 악한(惡漢)에서는 '악할 악'으로 읽는다.
 •奢侈(사치-사치할 사, 사치할 치):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거나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함.

문19. 정답 - ①

- ① ‘ㄴ, ㄹ, ㅇ’은 비음(코 안을 울리면서 내는 소리)이다. 유음(혀끝을 윗잇몸에 대었다가 떼거나 잇몸에 댄 채 날숨을 그 양옆으로 흘러보내면서 내는 소리)에는 ‘ㄹ’이 있다.

문20. 내용의 전개에 따라 바르게 배열한 것은?

(가) 사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고, 또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이쪽에서 보면 모두가 저것, 저쪽에서 보면 모두가 이것이다.
 (나)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생겨나고, 이것 또한 저것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이것과 저것은 저 혜시(惠施)가 말하는 방생(方生)의 설이다.
 (다) 그래서 성인(聖人)은 이런 상대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그것을 절대적인 자연의 조명(照明)에 비추어 본다. 그리고 커다란 긍정에 의존한다. 거기서는 이것이 저것이고 저것 또한 이것이다. 또 저것도 하나의 시비(是非)이고 이것도 하나의 시비이다. 과연 저것과 이것이 있다는 말인가. 과연 저것과 이것이 없다는 말인가.
 (라) 그러나 그, 즉 혜시(惠施)도 말하듯이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삶이 있다. 역시 된다가 있으면 안 된다가 있고, 안 된다가 있으면 된다가 있다. 옳다에 의거하면 옳지 않다에 기대는 셈이 되고, 옳지 않다에 의거하면 옳다에 의지하는 셈이 된다.

- ① (가) - (나) - (다) - (라)
- ② (가) - (나) - (라) - (다)
- ③ (가) - (다) - (나) - (라)
- ④ (가) - (라) - (나) - (다)

문20. 정답 - ②

접속어에 유의하여 끝을 같은 내용끼리 이어보면,
 [(가) 이쪽에서 보면 모두가 저것, 저쪽에서 보면 모두가 이것이다. → (나)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생겨나고~ 혜시(惠施)가 말하는 방생(方生)의 설 → (라) 그러나 그, 즉 혜시(惠施)도 말하듯이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고~옳다에 의거하면 옳지 않다에 기대는 셈이 되고, 옳지 않다에 의거하면 옳다에 의지하는 셈이 된다. → (다) 그래서 성인(聖人)은 이런 상대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또 저것도 하나의 시비(是非)이고 이것도 하나의 시비이다.]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